

‘코로나 충격’에 상반기 취업자 급감...10년 만에 첫 감소

◆ 고용정보원 ‘2020년 상반기 고용동향’ 분석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된 2010년 상반기 이후 처음 남성<여성 영향 커...숙박음식 등 女고용 높은 업종 일시휴직자 급증...“하반기 지연된 실업 관리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취업자 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하는 등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0년 상반기 고용동향 및 주요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26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9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10년 상반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내 취업자는 2008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7만3000명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충격이 강타하면서 이듬해인 2009년 상반기 14만7000명 급감했다.

다만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8만3000명 증가하며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매년 상반기 취업자는 ▲2011년 49만9000명 ▲2012년 47만4000명 ▲2013년 21만4000명 ▲2014년 67만5000명 ▲2015년 29만1000명 ▲2016년 20만7000명 ▲2017년 36만명 ▲2018년 14만2000명 ▲2019년 20만7000명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상반기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과 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56만8000명, 49만

2000명 증가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 47만6000명 급감하는 등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감소폭은 다소 완화됐으나 고용 충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4대(-14만4000명)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10만4000명), 20대(-9만7000명) 순이었다. 다만 고용률로는 청년 취업자인 20대가 -1.8%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하락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취업자(38만8000명)와 고용률(1.2%)이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년 동기보다 2만7000명 감소에 그친 반면 여성이 3만3000명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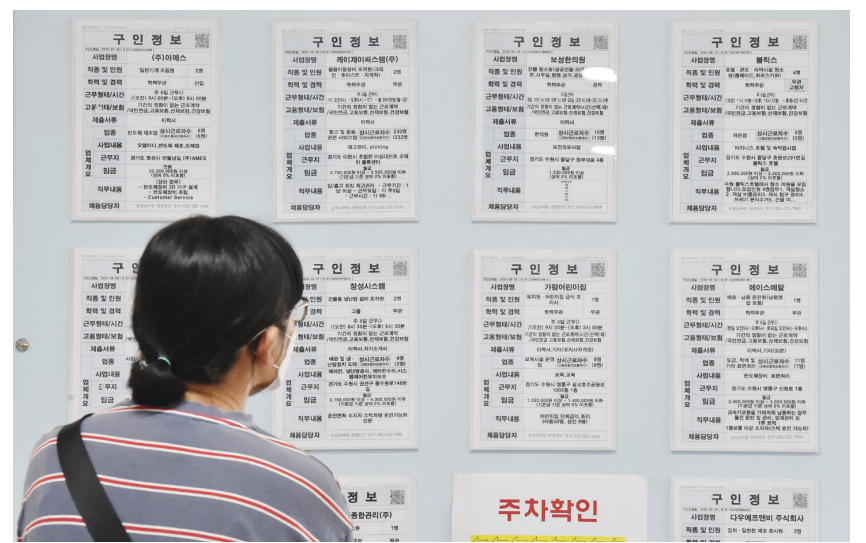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가구 내 돌봄의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유자녀 여성 취업자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단이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부문에 큰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3.9%), 숙박·음식업(-4.3%), 교육서비스업(-3.5%) 등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자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고용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59만1000명 늘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에 속하는데 올해 상반기 현재 일시휴직자 중 상용직 비중은 59.5%이었다. 휴직하지 않은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50.6%)보다 더 높았다. 여성 일시휴직자는 전년보다 37만6000명 증가해 남성(21만5000명)보다 높았다.

올해 상반기 실업자의 경우 11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



5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업률은 4.3%로 전년 동기(4.3%)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취업자 증가하는 등 ‘지연된 실업’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로 일단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며 조정 상태에 들어간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쉽사리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로 번지면서

전날 신규 확진자는 이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용시장 지표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고용시장은 ‘지연된 실업’의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시휴직자 등 고용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 상태에 들어간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제조업 영향이 심화돼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美 소형SUV 3대 중 1대 한국지엠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작년 이어 올 상반기 판매 1위 기록...국내 생산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쉐보레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올 상반기 미국 소형SUV 시장을 이끌었다.

23일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트랙스와 앙코르, 트레일블레이저, 앙코르 GX 등 한국지엠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소형 SUV 모델의 미국 시장 내 상반기 판매량은 9만3538대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시장 전체 소형 SUV 세그먼트 판매량(대중 브랜드 15개 소형 SUV 상반기 판매량 기준)의 30%를 넘어서는 수치다. 올 상반기 동안 미국 소형 SUV 소비자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지엠의 수출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쉐보레 트랙스’는 2분기

에 2만2466대를 판매하며 미국 소형 SUV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판매는 5만708대로 대중 브랜드가 판매 중인 15종의 소형 SUV 모델 가운데 높은 판매 수치를 보였다.

쉐보레 트랙스와 새시 및 파워트레인을 모두 공유하는 형제 모델인 뷰익 ‘앙코르’는 같은 기간 동안 2만4271대를 판매, 5위에 올랐다.

최근 미국시장 내 판매를 시작한 ‘트레일블레이저’와 형제 모델인 ‘앙코르 GX’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앙코르 GX는 1만1857대가 판매됐으며, 6월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한 트레일블레이저

는 6702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트레일블레이저는 최근 북미 자동차 관련 평가 기관인 아이씨카(iSeeCars) 주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된 차량’에 선정됐다.

아이씨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북미 시장에 출시 및 판매된 기아 텔루라이드·기아 셀토스·혼다 CR-V 하이브리드·현대 팰리세이드·벤츠 GLB 등 신차 12종을 대상으로 대리점에 입고된 후 고객 인도 기간을 조사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평균 19일이 소요된 신차 중 가장 빠르게 판매된 차량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지엠의 수출 물량이 현지 딜러에 도착하자마자 고객 인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트랙스의 인기 요인에 대해 “정통 SUV 스타일과 경쾌한 퍼포먼스, 뛰어난 안전성”이라며 “트랙스는 높은 전고와 고강성 차체, 근육질의 바디 등 북미지역에서 선호하는 정통 SUV 스타일을 갖췄다. 트랙스는 차체 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형 바디프레임(Body Frame Integral System)은 물론, 차체 곳곳에 고강력 강판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첫 ‘코로나 추석’...선물도 비대면으로

설문조사 2명 1명 “고향 안가”
“50.1% 추석 선물 e쿠폰 좋아”
유통업계 비대면 서비스 내바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선물세트 문화도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있는 명절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변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롯데쇼핑 통합 쇼핑 앱 롯데ON은 지난 3~5일 고객 3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세트 트렌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단 응답자 2

명 중 1명은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가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광복절 연휴 전에 진행된 것임을 감안하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추세는 선호 선물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응답자의 50.1%가 추석 때 받고 싶은 선물로 e쿠폰을 골랐다. 한우·과일·건강식품 등 전통의 명절 선물 가지들은 차례로 뒤로 밀렸다. 응답자 62.5%는 선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이번 추석 분위기는 이전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선물 선호도 조사에 따라 비대

면 트렌드에 맞는 선물세트 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통업계도 이같은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20여개 점포에서만 진행했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가까운 이마트에 전화해 선물세트 관련 방문 일정을 잡으면, 이마트 직원이 예약된 일정에 맞춰 고객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선물세트 관련 상담을 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마트는 “고객은 불특정 다수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거나 상담물 가지들은 차례로 뒤로 밀렸다. 응답자 62.5%는 선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백화점도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한다. 모바일 앱의 사전 배송접수를 선택하면 보내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미리 입력한 후 전용창구에서 상품을 접수할 수 있다.

헛갈리는 임대차보호법...“한 달 전 갱신 요구해야”

묵시적 갱신·4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갱신 요구 가능



정부가 지난달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상담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주요 내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됐다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올해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31일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됐다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해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갱신 시 증액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의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를 향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 의무 사항인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